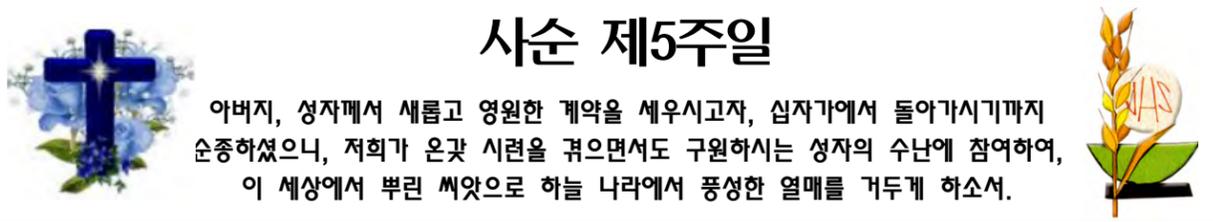


공동체 소식



사순 제5주일

아버지, 성자께서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세우시고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순종하셨으니, 저희가 온갖 시련을 겪으면서도 구원하시는 성자의 수난에 참여하여, 이 세상에서 부린 씨앗으로 하늘 나라에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소서.

3월 기도지향

- 정한조 / 정지현 막달레나 가정
- 박상준 안젤로 / 김화년 요안나 가정

3월은 '성 요셉 성월'입니다. 성모 마리아의 배필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양부인 성 요셉을 공경하며, 그분의 삶을 묵상합니다.

사순시기 운동

- 마니또 뽑기(기도와 회생 봉헌)
- 구역미사 및 관공성사
- 신심서적 '차쿠의 아침' 읽고 감상문 쓰기 (4/5 마감)

구역회의

- 일시 : 3/29(일) 오후1시
- 장소 : 회관

로렌스 공동체 미사

- 일시 : 3/28(토) 오후 5시 30분
- 장소 : 성 로렌스 성당(KU내)

파스카 성삼일 전례

- 성유 축성 미사 : 3/31(화) 오전 11시, 교구청 채플
- 주님 만찬 미사 : 4/2(목) 오후 8시, 밤샘성체조배(회관)
- 주님 수난 예식(예식 전 십자가의 길) : 4/3(금) 오후 8시
- 부활 대축일 밤미사 : 4/4(토) 오후 8:30

3/31(화) 교구사제단 공동 집전하는 '성유축성미사'로 본당 저녁미사는 없습니다

기타

- 전례부 : 4월 신심미사는 성주간 전례로 대신합니다.
- 전례부 : 부활대축일 맞이 꽃봉헌 받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평협 : 오늘 중심미사 후, 평협회의 있습니다.
- 다음 주일은 '주님 수난 성지주일'입니다. 미사 10분 전, 야외제대에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례 성가

시 작	예 목	성 체	마 침
118	217	166/78	121

주일미사 복사

	시종 복사	항 복사
금주	고영방 스테파노 김준영 요셉	문호진 안토니오 고평원 프란치스코
차주	정수한 베드로 이우영 가브리엘	차호섭 요셉 문석찬 요셉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주	박혜정 카타리나	서정문 토마스 김민영 크리스티나
차주	김주연 세실리아	김태중 예레미아 김시연 엘리사벳

애찬 봉사자

금주	김명은, 김화년, 안현숙
차주	김주연, 박희영, 이영민

헌금 봉사자

금주	백문주 엘리사벳, 고영방 스테파노
차주	박희영 카타리나, 이우영 가브리엘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투셔서 감사합니다!!!

	영성체	헌금	교무금
3/15	58명	217불	1,860불
유길수, 김정원, 현교정, 이우석, 박재천, 이내익, 정준구, 차호섭, 정수한(총 9세대)			

캔사스 한인 천주교회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 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박동희 안나 660.853.9984 flyanna@gmail.com

주임신부 주영길 토마스
M: 913.633.1273
jooyk88@gmail.com

회장 홍순의 마르티노
M: 913.486.4204

부회장 김태중 예레미아
M: 913.963.7521

재무 차호섭 요셉
M: 614.598.7908
hscha72@gmail.com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7:30 PM
목요일: 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오늘의 전례



오늘은 사순 제5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때', 그분께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 시어 모든 이를 당신께로 이끌어 들이실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자기 목숨을 버리는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자리입니다. 밀알처럼 죽어 많은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하여,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그림묵상

불멸의 밀알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요한 12,24) 한 알의 씨앗이 썩어 맺은 열매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합니다. 믿음을 통해 세상을 이겨낸 아름다운 그 순간, 불멸을 상징하는 공작새가 이를 지켜봅니다. 당신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순 시기에 우리도 기꺼이 밀알이 되도록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정미연 소화데레사

제 1 독서 : 예레미야서 31,31-34 < 나는 새 계약을 맺고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

화 답 송 :



하 느 님 제 마 음 을 깨 끗 이 만 드 소 - 서.

- 하느님 자비하시니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애련함이 크오시니 저의 죄를 없이 하소서. 제 잘못을 말끔히 씻어 주시고 제 허물을 깨끗이 없애주소서. ◎
- 하느님 재 마음을 깨끗이 만드시고 제 안에 굳센 정신을 새로 하소서. 당신의 면전에서 저를 내치지 마옵시고 당신의 거룩한 열을 거두지 마옵소서. ◎
- 당신 구원 그 기쁨을 제게 도로 주시고 정성된 마음을 도로 굳혀 주소서. 악인들에게 당신의 길을 가르치오리니 죄인들이 당신께 돌아오리이다. ◎

제 2 독서 : 히브리서 5,7-9

< 예수님께서서는 순종을 배우셨고,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

복음환호송 : ◎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으리라. ◎

복 음 : 요한 12,20-33 <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

쉐 마

“한걸음 내딛을 용기”



“나는 그들의 가슴에 내 법을 넣어 주고, 그들의 마음에 그 법을 새겨 주겠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예레미야서가 전하는 이 내용을 흔히 ‘새 계약’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었던 계명이 돌판에 적힌 것이라면 이제 더 이상 돌판이 아닌 마음에 법을 새겨 주기 때문입니다. 이 새 계약이 주는 의미는 대단히 큼니다. 옛 계약이 계명을 지키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새 계약에서는 죄의 용서를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구원을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한 죄의 용서를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복음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다가온 수난의 내용과 함께 예수님의 죽음을 짐작케 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밀알이 썩어 많은 열매를 맺고, 세상에서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분의 죽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한 “나는 땅에서 들어 올려지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 이끌 것이다”는 말씀은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기억하게 합니다.

이 말씀들은 모두 희생을 위한 예수님의 죽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여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제 마음이 산란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아버지 이때를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요?” 이 부분은 공관복음에서 겐세마니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하느님께 기도하셨던 부분입니다(마르 14,35). 결국 모든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수난과 죽음을 앞두고 고뇌를 겪으셨음을 전해줍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기도에서 예수님의 인간으로서의 모습이 잘 드러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겪으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는 당신께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요한 복음은 예수님의 말씀에 하늘에서 응답의 소리가 들려왔다고 전합니다. “나는 이미 그것을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겠다.” 여기서 우리는 요한 복음 저자의 생각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을 통해 저자는 두 가지의 사실을 나타냅니다. 시간적으로 하느님의 이름은 이미 영광스럽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과거와 현재의 사건처럼 설명됩니다. 하지만 다시 영광스럽게 되리라는 것은 미래의 사건을 지시합니다. 이미 시작되었지만 다시 일어날, 다시 말하면 미래에 완성되리라는 것은 하느님 구원 역사의 긴장을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완성에 이를 구원의 시간을 살고 있는 셈입니다. 내용적으로 하느님을 이미 영광스럽게 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업적입니다. 지상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모든 일은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통해 다시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때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파견된 사명은 완성될 것입니다.

사순시기는 역설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십자가 죽음과 영광, 고난과 영원한 생명, 심판과 용서. 서로 어울릴 것 같지 않은 표현들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사순시기 안에서 듣고 묵상합니다. 합리적으로만 생각한다면 될 법하지 않은 일들입니다. 하지만 체험 안에서는 가능한 것들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그 예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르라고 요청합니다. 우리는 때로 행동하기를, 실천하기를 주저합니다. ‘정말?’이라고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전히 제 자리에 선채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봅시다. 한 걸음 내딛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용기는 하느님께서 참되시다는, 약속을 지키신다는 신뢰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례에서 죄를 용서하겠다는 하느님의 약속이 예수님의 값진 희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주춧돌

제 3 편 자기 성화

제 1 장 자신을 굳건히 세우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분 안에 뿌리를 내려 자신을 굳건히 세우고 믿음 안에 튼튼히 자리를 잡으십시오. 그리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골로 2,6-7).

【주석】

주님으로 :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다는 말은 예수님을 하느님으로 믿어 고백한다는 표현이다. ‘주님’은 그리스 말 키리오스(Kyrios)이며 이는 하느님이라는 표현이다(주석 성경, 신약, 661 참조). “모세에게 계시하신, 감히 부를 수조차 없는 하느님 이름인 YHWH(야훼)는 그리스어역 구약성서에서는 Kyrios(주님)으로 번역된다”(가톨릭교회교리서, 446항)

뿌리를 내려 : “뿌리를 내려”라는 표현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다.’는 의미이고, 믿음 안에 튼튼히 자리를 잡는다는 표현이다. 예레 17, 7-8에서는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고 그의 신뢰를 주님께 두는 이는 복되다. 그는 물가에 심긴 나무와 같아 제 뿌리를 시냇가에 뻗어 무더위가 닥쳐와도 두려움 없이 그 잎이 푸르고 가뭄해에도 걱정 없이 줄곧 열매를 맺는다.”로 되어 있다.

【설명】

▶ 우리는 누구이며 어떻게 우리 자신을 굳건히 세울 것인가? 우리 각자는 하느님의 걸작품이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걸작품인 우리 각자는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듯이 예수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 행복을 열매 맺어야 한다.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아니 넘어진다 했다. 우리도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간계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고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한다. 우리가 자신을 굳건히 세운다는 것은 하느님을 첫 자리에 모시고 자신의 성장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다.

【교회의 가르침】

▶ 불멸의 영혼을 받은 인간은 “지상에서 그 자체를 위하여 하느님께서 바라신 유일한 피조물”이다. 임신되는 순간부터 인간은 영원한 행복을 향하게 되어 있다(가톨릭교회교리서, 1703항).

▶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은 자신의 존엄성과 자기가 들어 올려진 그 높은 경지와 자기 인간성의 탁월한 가치와 자기 존재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게 되었다(인간의 구원자, 11항).

- 『신앙생활 보감』, 청주교구 복음화 연구소, 2013 -

